

0929(목) 스가랴 7-11장 불행을 반복하지 말라

새로운 공동체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?
멸망을 불러왔던 **과거의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** 것입니다.

유대인들은 성전이 파괴되던 날을 기억하며 금식해 왔습니다.
새 성전이 건축되는 상황에서 금식을 계속해야할지 묻자,
하나님은 뜻밖의 질문과 책망으로 대답하셨습니다(7:3-5).
<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,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? >
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

백성들이 귀를 막고 성전에 나와 제 말만 할 때에,
하나님 역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으셨습니다.
<부르짖고-응답하는> 언약의 관계가 파기되었을 때(7:11-13),
풍요를 찾아 엉뚱한 목자와 우상들을 쫓았을 때(10:2-3),
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홀으셨습니다(7:14).

새로운 공동체는 **새로운 삶의 방식**을 택해야 합니다.
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행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,
압제나 해하는 일, 거짓 맹세를 말아야 합니다(7:9-10, 8:16-17).
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면 진리와 거룩함이 가득하고(8:3),
활기와 풍요, 기쁨과 화평이 회복될 것입니다(8:4-13, 18-23).

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인 열방을 심판하실 것입니다(9장).
다윗(유다)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(9:9-12, 창49:10-11참고)
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며, 억류된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.
무능한 목자를 제하시고 친히 백성을 돌보실 것입니다(10:3).
주님으로 인해 백성들의 존재/신분/가치가 변할 것입니다(9:16).

그러나 환란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(11장).

나는 거듭난 삶,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?
여전히 옛 방식대로 살며 불행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스가랴 7-11장